

2차 세계대전 연구동향과 전망

김남균*

1. 머리말
2. 전쟁 발발 원인
3. 연합군의 승리
4. 전쟁 책임
5. 맺음말

1. 머리말

2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겪은 최대이자 최악의 전쟁이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걸쳐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 전사자를 포함한 사망자가 6천만 명을 넘었다.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은 나라는 러시아(구 소련, 이하 러시아로 표기)와 중국이었다. 러시아는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2천 5백만 명 이상 사망하였고, 중국도 대략 1천 5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¹⁾ 또한 새로운 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의 방식도

* 평택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1) 독일에서는 4백만 명 이상, 일본에도 2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차 대

바꾸어 놓았다. 독일의 V-2를 이용한 원거리 공격과 연합군의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산업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습, 거기다 원자탄의 등장은 대량 살상의 시대를 열어 놓으며 전쟁의 근본적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²⁾

1945년 8월 2차 대전이 종식되자, 2차 대전의 해석을 둘러싼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³⁾ 승자와 패자의 관점만 다른 것이 아니었다. 같은 패전국이라도 나라마다 달랐고 승전국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달랐다. 같은 2차 대전을 경험하였지만 전쟁 시 입장에 따라 시각은 서로 달랐다. 우선 전쟁의 개전 시점에 대한 견해부터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1939년 9월 1일을 2차 대전의 발발일로 인정한다. 하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9월 3일이 전쟁 개시일이 된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 12월 7일이 2차 대전의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⁴⁾

일본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킨 것은 1931년이었고 제2차 중일전쟁을 시작한 것은 1937년이였다. 결국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일본의 침략전쟁은 나중에 진주만 기습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전쟁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2차 대전은 이미 1931년, 늦어도 1937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혹은 이태리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1935년이나

전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Gerhard L. Weinberg, *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 new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984.

2) Ibid., 123.

3) John Keegan, *The Battle for History: Refighting World War II* (New York: Vintage Books, 1995), 9-29.

4) 미국 워싱턴에 세워진 2차 세계대전 기념비에 “World War Two, 1941-1945”라고 새겨져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먼 데이비스(Norman Davis)는 미국 대중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Norman Davis, *No Simple Victory: World War II in Europe, 1939-1945* (New York: Penguin, 2008), 1.

5) A.J.P. Taylor,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1), v.; 프란시스 파이크(Francis Pike)는 2015년 출판된 저서,

스페인 내전이 발생한 1936년을 2차 대전의 발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⁶⁾

개전에 대한 견해만큼이나 종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1945년 5월 8일에 항복하였으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였다. 또한 일본이 항복문서에 사인한 날은 9월 2일이였다. 2차 대전의 종전일은 공식적으로 9월 2일이 되는 셈이다.⁷⁾ 하지만 2차 대전 연구의 권위자인 존 키건(John Keegan)에 따르면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나지 않았다. 독일군의 철수로 시작된 그리스 내전은 1947년까지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⁸⁾

인류 최대의 전쟁이었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2차 대전에 대한 수많은 연구 업적을 하나의 논문으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2차 대전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⁹⁾ 첫 번째 논점은 발발에 관한 것이다. 발발 시점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2차 대전의 개시일로 보며,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개전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2차 대전의 원인에 관한 것이다. 군사학자 리델 하트(B.H.Liddell Hart)는 처칠(Winston Churchill)의 말을 인용하면서 2차 대전은

『히로히토의 전쟁(Hirohito's War)』에서 일본인들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하나의 전쟁으로 보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혹은 “15년 전쟁”으로 다루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된 1937년을 2차 대전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Francis Pike, *Hirohito's War* (London: Bloomsbury, 2015), xxxviii

6) Gerhard Weinberg, *World War II: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

7) Ibid., 3.

8) Keegan, *The Battle for History*, 32.

9) 2차 대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바람: Keegan, *Battle for History*, 9-29.

“불필요한 전쟁(unnecessary war)”이었다고 주장한다.¹⁰⁾ 그렇다면 이 전쟁은 왜 발발한 것인가?

두 번째 논점은 연합군의 승리에 관한 것이다. 역사가들은 연합군의 승리를 연합군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우위와 그 경제적 우월성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다.¹¹⁾ 그러나 연합군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투를 통하여 쟁취한 것임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연합국의 승리 요인을 중심으로 최근의 역사적 해석의 변천을 알아보기로 한다. 과연 연합군의 승리는 당연하였던 것인가?

세 번째 논점은 2차 대전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2차 대전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되었다. 홀로코스트는 민간인 학살의 최악의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전쟁에 대한 문책으로 전후 독일의 나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도 전범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전범 처벌에 대하여 부당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과연 전범 처벌은 정당하였는가? 승리한 연합군은 전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위의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냉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2차 대전이 종식된 후 바로 냉전이 전개되었던 관계로 2차 대전을 보는 시각은 냉전적 사고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1990년대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사료들이 공개되면서 2차 대전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냉전 이후의 2차 대전 연구 성과를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2차 대전에 대한 연구 업적이 매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연구 업적들을 한 편의 논문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를 전제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필자가 선택한 제한된 저서를 가지고 2차 대전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¹²⁾

10) B. H. Liddell Hart,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G. P. Putnam's Sons, 1970), 701.

11) Ronald H. Spector, *Eagle against the Sun : The American War with Japan* (New York: Vintage Books, 1985), 560.

12) 대상 저서를 선택하는데 키건의 저서-*The Battle for History*가 도움이 되었으

2. 전쟁 발발 원인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대전은 시작되었다. 따라서 2차 대전에 대한 오래 된 첫 번째 쟁점은 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국가들은 히틀러의 침략을 미리 막아 내지 못하였는가 하는 점이다.¹³⁾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1938년 뮌헨협정(Munich Agreement)이다. 흔히 실패한 ‘유화정책(appeasement)’으로 불리는 뮌헨협정에서 서구 유럽은 히틀러에게 주데텐란트(Sudetenland)의 점령을 인정하였으나 전면 전쟁을 피하였다는 점에 만족하였다. 영국 수상 네빌 চে임벌린(Neville Chamberlin)은 평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평화의 꿈은 무산되었고 চে임벌린은 히틀러의 간계에 농락당한 무능한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20세기 대표적인 군사 연구자인 리델 하트에 따르면 2차 대전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전쟁”이었다. 불필요한 전쟁을 불러들인 결정적인 실책은 1936년 히틀러가 라인란트(Rhineland)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었다. 라인란트를 점령함으로써 히틀러는 루르 지역에 있는 독일의 핵심적인 산업 지역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프랑스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¹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히틀러였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책임이었다는 논지이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라인란트 점령을 방지하지 못한

며, 아울러 미국 체스넛힐 대학(Chestnut Hill College)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는 데이비드 콘토스타(David Contosta) 교수와 세인트 안셀름 대학(Saint Anselm College)의 역사학자 베스 살레르노(Beth Salerno)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콘토스타 교수와 살레르노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13) James L. Stokesbury, *A Short History of World War II* (New York: William Morrow, 1980), 21.

14) Liddell Hart,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701.

이유는 독일과의 마찰이 전쟁으로 발전할 것을 염려한 소극적 태도와 독일의 라인란트 진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전략적 오판 때문이었다고 리델 하트는 주장한다.¹⁵⁾

그렇다면 2차 대전의 원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히틀러의 의도가 된다. 히틀러는 어떻게 전쟁을 시작하였는가? 히틀러의 침략은 우발적 침략이었는가 아니면 거시적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준비한 침략이었는가? 영국의 역사학자 휴 트레버-로퍼(Hugh Trevor-Roper)에 따르면 히틀러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부에서 잃어버린 독일 제국을 회복하고 제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교로는 충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전쟁, 즉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 폴란드가 목표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러시아를 점령할 계획을 갖고 전쟁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¹⁶⁾ 트레버-로퍼에 따르면 히틀러는 정권을 장악한 직후 독일의 재무장을 시작하였는데, 독일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독일 제국을 부활시키기 위한 전쟁의 준비였다. 또한 사회주의시각을 가진 영국의 사학자 어니스트 맨들(Ernest Mandel)도 히틀러는 러시아의 영토와 자원을 차지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히틀러의 제국 건설 계획의 핵심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점령하는 것이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였다.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은 그에게는 제국 건설을 위한 출발이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와도 전쟁을 예상했다는 것이다.¹⁷⁾

맨들에 따르면 히틀러는 1935년부터 1939년까지 러시아를 차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쟁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 1936년 라인란트

15) Ibid.

16) Ernest Mandel, *The Meaning of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Verso, 1986), 22, 재인용.

17) Ibid., 22-23.

군사화, 1938년 주데텐란트 합병과 같은 것이 모두 러시아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하지만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점령에 실패하면서 그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을 감수하면서라도 동유럽으로 팽창정책을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했다. 이런 배경에서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였고, 그 결과 2차 대전이 발발하였다고 맨들은 주장한다.¹⁸⁾ 2차 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히틀러였다는 논지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을 연구한 영국의 수정주의 역사학자 테일러(A. J. P. Taylor)에 따르면,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은 오랫동안 준비한 결과가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mistakes)”였다.¹⁹⁾ 1936년까지 히틀러의 군비증강은 “신화”에 불과했다. 히틀러의 군비증강이 본격화된 것은 1936년부터였는데,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거기다 군비 증강은 독일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프랑스나 영국도 군비 증강에 나섰다. 전쟁 직전 1938~39년 독일의 국방 예산은 총국민생산(gross national products)의 15퍼센트였다. 이런 규모는 영국의 국방비와 같은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뮌헨협정 이후에는 국방 예산이 삭감되었다. 1940년까지 영국의 비행기 생산량이 독일을 앞섰다고 테일러는 지적한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독일은 1,450대의 전투기와 800대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950대의 전투기와 1,300대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탱크의 경우에도 독일은 3,500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3,85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⁰⁾

위와 같이 1990년대 이전 2차 대전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18) Ibid., 23.

19) Taylor, *The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xxi.

20) Ibid.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히틀러가 전쟁의 원인이고,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은 서구 지도자들의 실책이었다는 것이다. 2차 대전을 불필요한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은 독일이 패망하고 대신 유럽에 등장한 러시아와 냉전관계를 갖게 되면서, 러시아가 나치 독일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²¹⁾ 2차 대전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서구의 냉전 전략에도 영향을 주었다. 공산권에 대한 냉전정책의 핵심은 1938년 뮌헨협정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었다.²²⁾ 2차 대전을 냉전 시각에서 목적론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²³⁾ 로렌스 라포르(Laurence Lafore)는 “2차 대전을 유발시킨 사건들은 매우 빈번하게 1950년대 강대국 사이에서 발전된 관계의 관점에서 고찰” 되었음을 인정한다.²⁴⁾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2차 대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냉전 이후 나오고 있는 최근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이에 대해

21) 2차 대전의 결과에 대하여 전쟁사학자 풀러(J.F.C. Fuller)는 “아시아의 약탈자들이 독일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비엔나의 성벽 안으로 들어왔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과거로 돌아, 지금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은 크세르크세스와 다리우스 시대에 유럽이 당면하였던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덧붙여, 극동에서는 러시아의 대항마인 일본이 제거되어 공산주의 수문이 열리면서 중국을 수몰시켰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정치적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J.F.C. Fuller, *A Military History of the Western World, vol. 111, From the American Civil War to the End of World War II* (New York: Da Capo Press, 1956), 634.

22) 크리스토퍼 레인(Christopher Layne)은 “전후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 뮌헨은 전체주의 국가들은 극도로 침략적이며, 평화는 불가능하고, 침략은 어디서나 저지되어야 하며, 또한 ‘유화정책’은 항상 바보짓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한다. Christopher Layne, “The Munich Myth and American Foreign Policy,” in Kenneth M. Jensen and David Wurmser, eds., *The Meaning of Munich Fifty Years Later*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0), 18.

23)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결정하였던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2차 대전을 불러 온 뮌헨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술회했다. Harry S. Truman, *Memoirs, vol. 2: Years of Trial and Hope* (Garden City: Doubleday, 1956), 333.

24) Laurence Lafore, *The End of Glory: An Interpretation of the Origins of World War II*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70), 17.

알아보기로 한다. 2차 대전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인 게르하르트 웨인버그(Gerhard L. Weinberg)는 『전쟁하는 세계(A World at Arms: A Global History of World War II)』에서 기존의 역사가들이 소속된 국가 혹은 이념적 시각에서 2차 대전을 연구한 것과 달리 글로벌 시각에서 2차 대전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1939년 9월 1일 독일은 히틀러가 뮌헨에서 배운 ‘교환’, 즉 1938년 발생하였던 것과 같이 전쟁 걱정 속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세운 계획에 따라 교묘하게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며 히틀러가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한다.²⁵⁾ 그러나 독일 이외 국가들이 전쟁 발발에 기여한 점도 함께 지적한다.²⁶⁾ 또한 웨인버그는 2차 대전이 처음부터 세계대전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전쟁 과정에서 점차 글로벌화 되었다는 것이다. 웨인버그에 따르면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독일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1941년 여름 이후 독일의 계획에 따라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다. 1941년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것은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한다는 방어적 공격이었다.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었다. 유럽의 국지전이 글로벌 전쟁으로 발전한 것이다.²⁷⁾

웨인버그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하여 수 년 동안 준비하였지만 세계대전을 위한 준비는 아니었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수정주의 해석을 일부 수용하였다. 히틀러가 전쟁을 준비한 목적은 폴란드를 점령하여 독일의 영토를 넓히고 독일제국의 부흥을 위해서였다. 히틀러는 독일의 인구 증가에 대응한 “생존공간(Lebensraum)”을 확보하기 위하여 폴란드를 복속시키고 궁극적으로 러시아를 독일의 영토로 만들 것을 구상했다. 폴란드와 러시아를 순수한 독일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현지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이나 러시아인들을 모두 말살

25) Weinberg, *A World at Arms*, xiii.

26) *Ibid.*, 44.

27) *Ibid.*, xxiv.

하려는 것이 히틀러의 궁극적인 전쟁 구상이었다. 이런 독일제국의 건설에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유태인이라고 판단한 히틀러는 유태인말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⁸⁾

그렇다면 전쟁이 히틀러의 예상을 넘어 확산된 배경은 무엇인가?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공을 계획하면서 히틀러는 프랑스나 영국의 참전을 예상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가장 걱정하였던 것은 러시아의 협공이었다. 독일은 두 개 전선에서 싸운 1차 대전의 악몽이 있었다. 그러한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히틀러는 서부 전선에서 승리하기까지 러시아를 묶어 두기 원했다. 1939년 전쟁 도발 직전 베를린에서 체결한 몰로토프-리벤트로프조약(Molotov-Ribbentrop Pact)이 그런 독일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를 묶어 둔 히틀러는 폴란드를 점령하고, 계획대로 서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1940년 프랑스를 점령한 후 영국까지 점령하기를 원하였으나 도버해협을 사이에 둔 영국과의 전투는 성공하지 못하고 소강상태에 빠졌다. 히틀러는 영국과의 전쟁을 마치기 위하여 조약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영국은 거절하였다. 그러나 1941년 6월 히틀러는 서부전선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은 예상했던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전쟁은 히틀러의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세계대전으로 치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웨인버그는 태평양 전쟁과 유럽 전쟁은 근본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²⁹⁾ 히틀러가 서유럽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으면 일본은 태평양

28) Ibid., 21.

29) 유럽과 태평양에서의 전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피터 칼보코레시(Peter Calvocoressi)와 게이 윈트(Guy Wint)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그들은 “유럽과 태평양에서의 전쟁은 상호 연계성이 적었다(the wars in the two hemispheres were much less closely interdependent).”고 주장한다. Peter Calvocoressi and Guy Wint, *Total War: The Story of World War II* (New York:

전쟁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³⁰⁾ 히틀러의 초반의 성공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촉발시키면서 글로벌 전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 웨인버그의 해석이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기 따로 진행되던 국지전을 또 하나의 세계대전인 2차 대전으로 연결해 놓은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진주만을 공격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었다. 먼저 미국적 시각을 대변하는 국제주의 해석이다. 국제주의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1940년부터 일본에 대하여 압박 외교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으로 히틀러의 침공을 중시한다. 그들은 히틀러의 1940년 유럽에서의 승리와 1941년 러시아 침공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독일이 유럽에서 승리한다면 결국 미국이 단독으로 히틀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을 염려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히틀러를 패배시키는 것이 미국 안보의 필요조건이 됨으로써 미국은 연합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은 일본을 자극하여 전쟁을 촉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반대로 유럽에 집중하기 위하여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일본에 대한 억지정책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는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전쟁을 가져 왔다는 해석이다.³¹⁾

그러나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은 진주만 기습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게 돌린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것이다. 『떠오르는 태양(The Rising Sun: The Decline and Fall of the Japanese Empire, 1936-1945)』에서 존 톨랜드(John Toland)는

Pantheon Books, 1972), xii.

30) Weinberg, *A World at Arms*, 6.

31) Gerald N. Grob and George Athan Billias, eds, *Interpretations of American History: Patterns and Perspectives*, vol 2 since 1877, 5th edition(New York: Free Press, 1987), 340-341.

일본은 “생존하기 위하여 싸웠을 뿐 아니라 아시아 대륙을 위한 이념적 투쟁”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많은 동양인들은 일본의 전쟁을 인종과 피부색의 대결로 여겨 자신들의 전쟁으로 보았다; 그들은 또한 일본의 승리를 자신들이 서양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해방으로 보았다.”는 것이다.³²⁾ 그는 1920년대 미국 역사학자인 타일러 데넛(Tyler Dennett)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을 포함하여 서구 국가들은 극동의 문제를 만들어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들만 옳다는 자세를 버리고 사실 자체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 미국이 진작 그렇게 하였더라면 1941년 일본과 우리의 협상들은 아마 평화롭게 종결되었을 것”으로 톨랜드는 추측한다.³³⁾ 그는 태평양 전쟁의 원인은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몰지각한 사고의 결과였다고 주장한다.

태평양 전쟁의 발발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수정주의 학설은 톨랜드의 저서가 처음은 아니다. 2차 대전의 종전 직후부터 제기되었던 주장이다. 대표적인 수정주의 역사학자는 찰스 비어드(Charles A. Beard)였다. 그는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기 위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중립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을 교묘하게 압박하여 전쟁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³⁴⁾ 일본 압박정책은 중립법에 묶여 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자 하는 구실을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종전 후 시작된 수정주의 학설이 톨랜드에 의하여 재생산된 것이다.³⁵⁾ 그러나 수정주의 해석에 반대하는 국제주의 역사

32) John Toland, *The Rising Sun: The Decline and Fall of the Japanese Empire, 1936-1945* (New York: Modern Library, 1970), xiv.

33) Ibid.

34) Charles A. Beard, *President Roosevelt and the Coming of the War, 1941: A Study in Appearances and Realities* (New Brunswick: Transactions Publishers, 1948), 598.

35) 대표적인 수정주의 역사가들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Charles C. Tansill, *Back*

학자들은 루즈벨트가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일본의 침략을 유도하였다는 침략 유도설을 반대한다.³⁶⁾

진주만 기습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에 대해 2015년 출판된 『히로히토의 전쟁』에서 파이크는 태평양 전쟁의 발발 원인이 미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을 놓고 100년 이상 각축을 벌였는데, 이런 각축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아시아를 지배하던 중국의 국력이 쇠약해진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중국의 쇠퇴에 따른 힘의 공백이 아시아에 발생하자 중국 대륙의 이권을 침탈하기 위하여 서양 각국이 중국으로 몰려왔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이들의 대열에 참여하면서 이권쟁탈의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³⁷⁾

파이크는 1930년대 유럽에서 독일이 패권을 차지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모두 미국을 밀어내려고 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외교의 전통이었던 고립주의를 버리고 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이권을 보호하고자 나치즘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국제주의에 가까운

Door to War: Roosevelt Foreign Policy, 1933-1941 (Chicago: Regnery, 1952); George Morgenstern, *Pearl Harbor: The Story of the Secret War* (New York: Literary Licensing, 1947); William H. Chamberlain, *America's Second Crusade* (Chicago: Regnery, 1950); Robert A. Theobald, *The Final Secret of Pearl Harbor: The Washington Contribution to the Japanese Attack* (New York: Devin-Adair, 1954).

36) 대표적인 국제주의 역사학자들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Herbert Feis, *The Road to Pearl Harbor: The Coming of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Basil Rauch, *Roosevelt: From Munich to Pearl Harbor* (New York: Creative Age Press, 1950); William L. Langer and S. Everett Gleason, *The Challenge to Isolation, 1937-1940* (New York: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52); Robert Divine, *The Reluctant Belligerent: American Entry into World War II* (New York: Alfred Knopf, 1965).

37) Pike, *Hirohito's War*, xxxvi.

설명이다.³⁸⁾ 그런데 1941년 7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석유의 금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 정부를 압박하였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전쟁행위”로 볼 수 있는 조치였다면서 수정주의 해석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안이 없었던 일본 지도자들은 진주만 기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진주만 기습은 아시아 제국에 대한 일본의 야망을 미국이 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일본식 압박전술이었다는 것이다.³⁹⁾ 파이크에 따르면 진주만 기습만 가지고 태평양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며, 태평양을 지배하려는 미일간의 오랜 각축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다.

3. 연합군의 승리

1942년까지 2차 대전의 전세는 추축국에게 유리했다. 그러나 1942년 여름이 지나가면서 러시아의 스탈린그라드(Stalingrad)에서 독일군의 진격이 저지되었고, 이어서 1943년 여름에는 독일의 전차부대가 러시아의 쿠르스크(Kursk)에서 격퇴됨으로써 독일의 러시아 침공 작전은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1942년 11월에는 북아프리카 엘 알라메인(El Alamein)에서도 독일군이 패배하면서 유럽의 전세는 전체적으로 연합국에 유리하게 역전되었다. 거기다 태평양 전선에서도 일본이 이미 1942년 6월에 미드웨이 해전에 패배하면서 전세가 미군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었다. 1942년 이후 독일과 일본은 전세를 다시

38) 국제주의자 허버트 페이스(Herbert Feis)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Feis, “War Came at Pearl Harbor: Suspicious Considered,” *Yale Review* 45(Spring 1956): 378-390.

39) Pike, *Hirohito's War*, xxxvi-xxxvii

역전시키지 못하였고, 결국 1945년에 항복하고 말았다.

초반에 불리하던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서구 역사가들은 연합군의 승리를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산업화로 기계화된 전쟁에서 물질적으로 우세한 연합군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냉전 이후 연합군의 승전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있다. 영국 역사학자 리처드 오브리(Richard Overy)는 『왜 연합군이 승리 하였는가(Why the Allies Won)』에서 2차 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물질적 요인이 처음부터 작용하였다는 점을 부정한다. 추축국이 경제적으로 미약하였기 때문에 연합군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는 싸워서 쟁취한 것임을 강조한다.⁴¹⁾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던 순간에 이미 연합군은 독일과 일본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상태였다.”는 파커(R.A.C. Parker)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다.⁴²⁾ 그는 2차 대전의 승패는 예측불허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오브리는 이에 대하여 승리의 방법과 이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전략적 측면에서 연합군의 제해권 장악을 승리의 첫째 요인으로 생각했다. 2차 대전은 한 지역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투가 진행되는 각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해군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으나 연합군 해군은 전쟁 초반 독일군의 잠수함 공격에 고전했다. 연합군의 전체적인 작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해군이 독일의 잠수함 공격을 극복하고, 또한 미드웨이와 코랄 해전에서 미군이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연합군이 제해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해권의 확보는 연합군의

40) Specter, *Eagle against the Sun*, 560.

41) Richard Overy, *Why the Allies Won* (New York: W.W. Norton, 1996), xiv.

42) *Ibid.*, 2.

군수품이 영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각 전투지역으로 원활하게 공급 되게 함으로써 승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오브리가 주장하는 연합군 승리의 둘째 요인은 러시아의 성공적 방어전이었다. 히틀러는 독일군 178개 사단과 헝가리, 이태리,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군대로 구성된 39개 사단을 추가로 배치하여 러시아를 침공했다. 히틀러는 4개월 이내에 러시아를 점령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실 러시아는 개전 수 주 내에 2백만 명의 전사자를 냈고 5천 대의 비행기를 잃었다.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가 포위 속에 들어가자 1941년 10월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은 전쟁의 포기까지 생각했다.⁴³⁾ 그러나 러시아는 버텼다. 오브리에 따르면 러시아의 결사 항전이 “연합군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⁴⁴⁾ 1941년 12월까지 러시아군은 4백만 명의 전사자와 8천 대의 비행기, 17,000대의 탱크를 잃었다. 이것은 1941년 6월 러시아가 소유하던 전체 군사력에 맞먹는 양이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철강과 석탄 생산의 절반 이상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부 곡창 지대를 모두 상실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몽골 지역에서도 병력을 보충하면서 전쟁을 계속했다. 마침내 1943년에는 스탈린그라드와 쿠르스크에서 승리하면서 2차 대전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⁴⁵⁾

그렇다면 연합군이 다시 제해권을 장악하고 러시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오브리에 따르면 연합군의 제공권 장악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합군의 공습이었다. 연합군의 공습이 강화되고, 폭격으로 인해 국내 산업 시설이 마비되는 상황에 놓인 독일은 국내 산업시설을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독일은 연합군 폭격기를 막아내기 위해 전투기를 국내로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전투지에서는 독일군 전투기의

43) Ibid., 19.

44) Ibid., 19.

45) Ibid., 20.

숫자가 현격히 감소하며 독일군은 열세에 놓였다. 거기다 독일은 공습조차 막아내지 못해 전투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군은 더욱 곤경에 처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연합군의 공습은 독일의 국내 산업 시설을 파괴하거나 독일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용만 한 것이 아니라 독일 공군의 전술 자체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독일군의 전력을 총체적으로 약화시켰다는 것이다.⁴⁶⁾ 따라서 연합군의 공습이 연합군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연합군이 이태리와 프랑스에 상륙함으로써 제2 전선이 형성되면서 러시아는 독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었다.

오브리는 연합군의 제해권 장악과 공습을 결정적인 승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에는 이견이 있다. 마틴 라크(Martijn Lak)는 오브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크에 따르면 연합군의 공습은 1944년 초까지 독일 군수품 생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1943년 연합군 공습은 독일 군수품 생산의 9퍼센트 정도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밖에 없었다. 물론 라크도 연합군의 공습이 독일 국내 산업시설과 연료 생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독일군의 패배에 기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부정하지는 않는다.⁴⁷⁾ 또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독일군의 패배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도 인정한다. 하지만 연합군의 승리는 서부전선이 아니라 동부 전선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브리도 러시아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나 제해권과 공습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대한 시각적 차이가 있다.

1941년과 1945년 사이 러시아군은 군인과 민간을 포함하여 약 2천 5백만에서 3천만 명이 희생되었다. 러시아군 전사자 수는 8백 7십만

46) Ibid.

47) Martijn Lak, "Review Article: Contemporary Historiography on the Eastern Front World War II,"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28(2015), 571; A. Tooze, *The Wages of Destruction: The Making and Breaking of the Nazi Economy* (New York: Viking, 2006), 650-651.

명이었으며 이 숫자는 영국군과 미군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11배 많은 숫자였다.⁴⁸⁾ 영국 역사학자 앤드류 로버츠(Andrew Roberts)에 따르면 “미군 1명이 전사할 때 일본군은 6명, 독일군은 11명, 그리고 러시아군은 92명이 전사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독일을 패배시키는데 필요한 피의 바다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한다.⁴⁹⁾ 독일군 역시 동부 전선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를 냈다. 1941년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부터 1944년 매월 6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 특히 1944년 7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던 시기에도 전체 독일군의 전사자 수는 35만 명이었는데, 그 중 27만 명 이상의 전사자가 동부 전선에서 나왔다. 전체적으로 독일군 전사의 약 79퍼센트가 동부 전선에서 발생했던 것이다.⁵⁰⁾ 라크에 따르면 독일군의 주력부대는 동부 전선에서 싸웠고 1941년 6월부터 1945년 1월 사이 독일군의 약 55퍼센트가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었다. 1941년과 1942년 사이에 가장 많았을 때는 독일군의 70-77퍼센트가 이 지역에 배치되었다.⁵¹⁾ 또한 1944년이 되면서 러시아는 서유럽의 제2전선과 상관없이 2차 대전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러시아 전선이 2차 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셈이 된다.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는 냉전 이후 2차 대전 연구의 새로운 추세이다. 냉전동안 서유럽 국가의 2차 대전 연구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과 영국이 히틀러를 격퇴한 것으로 평가하고,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고 또한 이념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었다.⁵²⁾ 그러나 1990년대 러시아 사료들이 공개되자 독일과

48) Lak, “Review Article,” 572.

49) Andrew Roberts, *The Storm of War: A New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London: Penguin Books, 2010), 603.

50) Lak, “Review Article,” 573.

51) Ibid., 569.

52) Keegan, *Battle for History*, 41.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2차 대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프리츠(Stephen C. Fritz) 역시 독일의 주력군을 격퇴시킨 것은 러시아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엄청난 피해를 강조한다. “전체 독일군과 러시아군 사망자(군인과 민간인)는 3천 5백만 명에 이르렀으나, 영국과 미국의 사망자는 1백만 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⁵³⁾ 전쟁사학자 로버트 커추블(Robert Kirchubel)도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결국 제3제국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것은 유럽에서 2차 대전의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강조한다.⁵⁴⁾ 이런 여러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종합해 본다면 동부 전선이 2차 대전의 중심 전장이었으며,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다른 지역의 모든 참전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싸운 이곳이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 난 곳이 된다.⁵⁵⁾

반대로 독일군이 동부 전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많은 역사학자들은 독일이 병참 준비에 미비하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준비 부족은 독일이 러시아를 과소평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⁵⁶⁾ 히틀러를 비롯한 독일군 지도부는 길어야 수개월 이내에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도부의 오판이었던 셈이다.⁵⁷⁾

그렇다면 이런 오판은 왜 수정되지 못하였는가? 2차 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경제적 물질적 요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 냉전

53) S.C.Fritz, *Ostkrieg: Hitler's War of Extermination in the East*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1), xxi-xxii.

54) Robert Kirchubel, *Operation Barbarossa: The German Invasion of Soviet Russia* (Oxford: Osprey, 2013), 15.

55) Lak, “Review Article,” 570.

56) Ibid.

57) 리델 하트도 독일 지도부의 오판을 핵심 패인으로 지적한다. Liddell Hart,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710.

종식 이후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이다.⁵⁸⁾ 전쟁이 진행되면서 불리하던 연합군의 전투력은 향상되었는데, 왜 추축국은 역전된 전세를 회복하지 못하였는가? 오브리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군의 군사문화에 문제가 있었다. 독일이나 일본 사회는 군국주의가 지배했다. 군이 산업생산을 군대의 필요에 맞추어 통제하고 민간인은 군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엄격한 통제 사회였다. 민간인이 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군대가 우위에 있는 경직된 사회였다. 히틀러나 일본군 지도부에 비판적인 인물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반대자들은 견디다 못해 히틀러를 살해할 음모까지 꾸뻬던 것이다. 건설적인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없었다.

그에 비하여 미국이나 영국은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사회적 문화가 달랐다. 미국 군대에는 민간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군대를 움직이며 군대를 통제했다. 비판할 수 있었고 잘못은 수정될 수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연합군 측의 전투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조직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군과 민간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오브리는 이 같은 문화적 우월성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⁵⁹⁾

연합국과 추축국의 문화적 차이점에 대하여 폴 케네디(Paul Kennedy)도 흥미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3년에 나온 『승리의 기술자들(Engineers of Victory: The Problem Solvers Who Turned the Tide in the Second World War)』에서 연합국의 승리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영국의 공군력, 러시아의 T-34 탱크, 소형 레이더, B-29 폭격기 같은 어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이 승패를

58) 물론 냉전기 동안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라포르는 히틀러가 러시아를 과소 평가한 것은 히틀러가 유럽식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러시아나 미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포르에 따르면 2차 대전은 유럽식 사고에 의한 마지막 전쟁이었고 유럽시대를 종식시킨 전쟁이었다. Lafore, *The End of Glory*, 263-365.

59) Overy, *Why the Allies Won*, 22-24.

결정지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⁶⁰⁾ 연합군의 승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케네디가 연합군의 승리 요인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요인이었다.

1939년부터 1943년 초까지 연합군은 추축국의 전세에 눌려 있었다. 케네디에 따르면 연합국이 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던 계기는 1943년 1월 카사블랑카에서 개최되었던 연합국 수뇌부 회의였다. 카사블랑카 회의에서 연합군은 먼저 독일을 격파하는데 연합군의 힘을 집중시키고, 이어 태평양에서 일본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는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카사블랑카에서 연합군의 전쟁의 목표를 추축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결정했다. 이후 17개월 후 연합국은 성공적으로 전략 목표를 달성했다. 1944년 7월이 되자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⁶¹⁾ 그러나 카사블랑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전쟁 수행에 대한 전략 목표를 정한 것에 불과했다.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전쟁의 최종목표는 군 지도부에서 내리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 군 조직의 활동에 달려 있었다.

케네디가 주목한 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한 전쟁 목표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중간 실무 책임자들이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된 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작전을 성사시키는 중간 실무 책임자 그룹의 역할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쟁에서는 새로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 나오는 산출물이었다. 이런 집단적 노력의

60) Paul Kennedy, *Engineers of Victory: The Problem Solvers Who Turned the Tide in the Second World War* (New York: Random House, 2013), xv. 케네디의 본 저서는 2015년 국내에서 김규태와 박리라의 공역으로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김규태, 박리라 옮김,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영웅들의 이야기』 (파주: 21세기 북스, 2015).

61) Ibid., xvi.

결과물은 “격려문화(culture of encouragement)”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케네디의 진단이다. 외부의 새로운 생각이 유입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실수도 용인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은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생산적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⁶²⁾

케네디는 독일과 일본의 군사조직 문화와 연합국의 군사조직 문화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독일은 히틀러를 정점으로 철저한 상명하복식의 군사조직을 갖고 있었다. 중요한 군사작전을 모두 히틀러가 결정했다. 결정적 오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가장 대표적인 오판은 러시아를 다방면에서 침공한 결정이었다. 독일이 러시아의 북부부터 남부까지 러시아 국경 전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한 것은 군사적 오판이었다. 케네디의 판단으로는 모스크바에 집중하여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었다. 독일군의 군사력이 분산된 결과 모스크바와 스탈린그라드를 포함하여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점령할 수 없는 결과를 빚어냈다. 오히려 히틀러의 간섭이 적었던 곳에서 독일군은 더 좋은 전과를 올렸다. 북아프리카의 롬멜(Erwin Rommel)과 이태리 남부의 키슬링(Albert Kesselring)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⁶³⁾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철저하게 신격화된 일본 왕을 위한 전쟁이었다. 왕에 대한 충성만 강조되는 일본군의 조직문화도 전쟁 중 극도로 경직되어 있었다. 케네디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에서는 새로운 신형무기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태평양 전쟁 중에 위력을 떨쳤던 제로 비행기나 항공모함도 모두 전쟁 전 1930년대 나온 것들이었다. 전략적으로 하와이를 점령하지 않고 엉뚱하게 동남아 섬들을 점령한 일본의 전략적 결정도 조직문화의 유연하지 못한 결정 탓이었다.⁶⁴⁾

62) Ibid., 365.

63) Ibid., 367.

64) Ibid.

연합국의 조직문화는 전혀 달랐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군사문제는 군사전문가들에게 맡겼다. 군 지도자의 진급과 상벌에 관한 것도 모두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 조지 마셜(George Marshall)에게 일임하고 간섭하지 않았다. 루즈벨트는 해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군의 군사 작전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군 조직은 군사 지도자들이 군사적 측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방된 조직이었다는 것이 케네디의 평가이다. 영국 수상 처칠은 미국의 루즈벨트보다 군사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별적인 군사 작전까지 간섭하지 않았다. 처칠 역시 전쟁을 수행할 책임자를 찾고 그 책임자가 전쟁을 수행하도록 맡겨 놓았다.⁶⁵⁾

상층 지도부의 유연한 조직 관리는 군사 조직의 중간 간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었다. 전쟁 중에 많은 신형무기가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도 이런 유연한 조직문화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소형 레이더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독일군 잠수함 격침, 영국공군의 혁혁한 공적, B-29의 출현 뿐 아니라 원자탄의 발명 등도 모두 이런 조직 문화의 결과였다고 케네디는 평가한다. 결국 연합군의 승리는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승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케네디는 실무 책임자의 생산성이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파악한다.⁶⁶⁾ 케네디의 이런 주장은 연합군의 승리 원인으로 전쟁 지도부에 집중하였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실무 책임자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다.

연합군의 승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 문제이다. 냉전기 대표적인 군사연구자인

65) Ibid., 367-368.

66) Ibid., 369.

리델 하트는 독일이나 일본이 끝까지 항전하도록 만든 것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조건부 패배를 인정하였으면 독일은 히틀러에 대항하는 세력에 의하여 전쟁을 더 일찍 끝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무조건 항복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⁶⁷⁾ 그러나 니콜라스 스타가르트(Nicolas Stargardt)는 2015년 출판된 『독일의 전쟁(The German War)』에서 독일인들이 베를린이 점령되는 순간까지 히틀러를 지지한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같은 추축국이었던 일본은 원자탄이 투하된 이후 곧장 항복하였던 것에 반하여 독일은 베를린이 점령되고 히틀러가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⁶⁸⁾

스타가르트에 따르면 두 가지 역사적 경험이 독일인의 심리에 작용한 탓이었다. 첫째, 독일인들은 2차 대전을 1차 대전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었다. 1차 대전에 패배함으로써 독일이 경험하였던 치욕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역사의식이었다. 스타가르트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가 공유하고 있었던 역사의식으로 파악했다. 세대를 초월하여 같은 역사의식을 지닌 독일인들은 2차 대전을 1차 대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파악하였다. 만약 2차 대전에 패배한다면 미해결의 민족적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또 다시 물려주게 됨으로써 후대가 같은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으로 인식했다.⁶⁹⁾ 이것이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습경험이었다. 독일인들에게는 공습경험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독일인들은 이런 공습이 독일인들에게 가해진 것은 유대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67) Liddell Hart,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712.

68) Nicholas Stargardt, *The German War: A Nation Under Arms, 1939-1945, Citizens and Soldiers* (New York: Basic Books, 2015), 1.

69) *Ibid.*, 9.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유태인 학살이 유태인들을 국제적으로 단합하게 하여 독일인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믿었다. 유태인들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와 공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태인들이 세계 각 국가의 정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⁷⁰⁾ 그리고 유태인뿐 아니라 러시아인들도 독일인들이 가혹하게 처단하였던 것만큼, 전쟁에 진다면 그 만큼의 학살과 처벌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므로 저항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스타가르트의 연구는 종전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이다. 그동안 연합군의 공습은 독일의 산업시설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독일인들의 전의를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스타가르트의 연구는 공습이 독일인들의 전쟁 이유를 더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후속 연구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4. 전쟁 책임

2차 대전이 종식된 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국제전범재판(International War Tribunal)이 진행되었다. 핵심 나치 지도자 23명이 기소되어 그 중 12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일본 도쿄에서도 전범재판이 진행되어 핵심 지도자 2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7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자체가 범죄가 되었다.⁷¹⁾ 그러나 전후 독일과 일본에서 진행된

70) Ibid., 7-8.

71) Calvocoressi and Wint, *Total War*, 519-520, 835; 전범 문제는 1940년 11월 폴란드와 체코 망명정부가 독일의 학살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처음 등장하였

전범재판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⁷²⁾ 미국이 자신들의 공습과 원자탄으로 발생한 무수한 민간인 사망을 덮기 위하여 일본에 대해 가혹한 전범재판을 실시하였거나 혹은 전범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재판한 정치재판이었다는 비판이다.⁷³⁾ 영국의 수정주의 역사가 테일러는 나치 지도자를 전범으로 처벌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도덕적 잣대로 히틀러를 평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주권국가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다 잘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범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⁷⁴⁾ 그러나 전범재판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928년 켈로그-브리앙조약(Kellogg-Briand Pact)이 전범재판의 충분한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⁷⁵⁾

전범문제를 둘러싼 역사전쟁은 쉽게 끝이 날 것 같지 않다. 최근 저서들도 전범재판의 효과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015년 출판된 『인간에서 악마로, 악마에서 인간으로(Men to Devils, Devils to Men)』에서 바락 쿠슈너(Barak Kushner)는 전범재판이

다. 그 결과 1942년 1월 13일 영국에서 9개국 연합군 대표들이 독일의 학살을 규탄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졌고, 이어 1943년 10월 26일 17개국 대표들이 런던에 모여 유엔전범위원회(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UNWCC)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전범이 연합국의 전후 처리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전범재판이 구체화된 것은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4국이 합의한 런던조약(London Agreement)이었다. Barak Kushner, *Men to Devils, Devils to Men: Japanese War Crimes and Chinese Justice*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40.

72) Calvocoressi and Wint, *Total War*, 519-520; Jeremy Rabkin, “Nuremberg Misremembered,” *SAIS Review*, 19-2 (Summer 1999), 81.

73) Jeremy Colwill, “From Nuremberg to Bosnia and Beyond: War Crimes Trials in the Modern Era,” *Social Justice: A Journal of Crimes, Conflict and World Order*, 22-3(Fall, 1995), 113.

74) Taylor, *Origins of the Second World War*, xiii.

75) Calvocoressi and Wint, *Total War*, 521; John P. Kenny, “The Base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s Authority,” *A Speculative Quarterly Review* (January 1948), 197-198.

일본 사회에 끼친 효과가 매우 미약하였음을 보여준다. 쿠슈너가 다루고 있는 전범은 A급이 아닌 BC급 전범들이다.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A급 전범들을 다루었다. A급 전범은 일본의 “침략적(aggresive)”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고위 지도자들이었다.⁷⁶⁾ B급 전범들은 “전통적인 전범(강간, 살인, 불법감금, 포로학대 등)”들이었고, C급 전범은 “반인륜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의미했다. C급과 A급 범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구별은 쉽지 않았으나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하여 A급 전범의 명령을 수행한 하급 지휘관이 해당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말살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관계로 B급과 C급을 합쳐서 보통 BC급 전범으로 취급되었다.⁷⁷⁾ BC급 전범들에 대한 재판은 도쿄 대신 중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괌 등 일본군이 점령하였던 지역에서 전쟁 직후 진행되었으나, 쿠슈너가 주로 다루고 있는 BC급 전범재판은 중국에서 있었던 것들이다.⁷⁸⁾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이 항복하자 일본군 포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대부분 귀국시켰다. 예외적으로 소수의 일본군 포로를 전범 재판에 회부하였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국민당 정부 아래 883명의 일본인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 중 355명이 유죄가 인정되어 149명이 처형되었다.⁷⁹⁾

쿠슈너가 중국의 일본군 전범재판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전후 중국의 일본군 전범 처리 방식과 그것이 중일관계 및 일본의 전쟁 책임 의식에 끼친 영향이다. 전후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항복한 일본군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대우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중국은 대외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지도국가임을 과시할

76) Kushner, *Men to Devils, Devils to Men*, 7.

77) Ibid., 7.

78) Ibid., 8.

79) Ibid.

필요가 있었다. 둘째로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의 내전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다. 전직 일본 군인을 국민당 지원에 활용할 국내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1949년 중국 전범재판에 회부되었던 중국 지역 일본군 최고사령관 오카무라 야수지(岡村寧次)였다. 그는 전범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일본으로 귀국한 후 민간단체(White Group)를 조직하여 국민당 정부의 군사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⁸⁰⁾

중국의 전범재판은 국민당 정부에서 끝나지 않았다. 공산당 정부에서도 일본군 전범을 다루었다. 1950년부터 1956년까지 제2차 전범재판이 공산당 정부에 의하여 다시 진행되었다. 이때 전범재판을 받은 일본 군인들은 러시아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 있다가 중국으로 압송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일본군 전범자들을 사형시키거나 감금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본군 포로들은 모두 석방시켰다. 중국 공산당은 일본의 전범 사실을 드러내는 것에 재판의 의미를 부여했다. 공산당 정부는 전범자(devils)들이라 해도 교화과정을 통하여 다시 선량한 사람(men)으로 교화되면 귀국시키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다.⁸¹⁾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모두 전범재판을 하였던 것은 두 세력이 서로 중국을 대표하는 법적 주체임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홍보행위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전범재판이 일본 사회에 끼친 결과적 효과에 대해서도 쿠슈너는 의문을 제기한다. 쿠슈너는 일본 군인들에 대하여 도쿄의 A급 전범재판이나 중국에서의 BC급 전범재판이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일본사회는 전범재판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일본사회는 일본 왕을 위하여 싸운 군인들이 전범자로 처벌받는다 하는 것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80) Ibid., 186.

81) Ibid., 23.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자 A급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대부분 감형되거나 복권되었다.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수상까지 되었다.⁸²⁾ 전범재판이 일본사회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은 200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과 민주당 의원 오카다 카스야(岡田克也) 사이의 논쟁에서도 잘 드러났다. 전범에 대한 오카다 의원의 질문에 아베는 일본의 국내법에 의하면 일본에는 전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지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일본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전범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⁸³⁾

일본 전쟁 책임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일본 왕 히로히토의 책임문제이다.⁸⁴⁾ 히로히토는 도쿄 전범재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5년 출판된 저서 『히로히토의 전쟁(Hirohito's War)』에서 파이크는 히로히토의 전쟁 책임문제를 제기한다. 히로히토는 히틀러와 같은 정도로 2차 대전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만큼 전쟁과 무관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히로히토는 일본을 대표하고 지배하는 절대 군주로서 군통수권자의 직위에 있었다. 그의 명령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되었고 전쟁도 수행되었다. 전쟁 기간 중 히로히토는 항상 군복을 입고 전쟁을 독려하는 입장이었으며, 궁궐 지하에 설치된 전쟁지휘실(war room)에서 전쟁 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특히 전세가 악화되자 히로히토는 군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

82) Ibid., 25.

83) Ibid., 314-315, 재인용.

84)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대한 문제는 히로히토가 사망한 1989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연구의 권위자인 허버트 빅스(Herbert Bix)에 따르면 히로히토는 정치에 무관하였다는 이미지와 다르게 2차 대전에 깊이 관여했다. Herbert Bix, "Emperor Hirohito's War," *History Today* 41 (December 1991), 13-19.

하며 결정에 개입했다. 항복도 히로히토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었다.⁸⁵⁾

현실적으로 1930년대 일본의 정권은 육군과 해군이 장악하였으며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에 대한 결정에 히로히토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1930년대 일본의 승전의 결과를 누리고 있었다. 또한 진주만 기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군 지도자들과 같이 극단적 팽창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들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특히 전쟁 책임론과 관련하여 평가할 때 중국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 사건을 히로히토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이크는 히로히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⁸⁶⁾

그러나 증거부족이 히로히토의 전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파이크는 주장한다. 전후에 뉘른베르크나 도쿄를 비롯하여 상하이, 다윈, 필리핀, 괌 등 여러 곳에서 실시되었던 전범재판에서 전범에 대한 책임은 학살 행위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학살 행위를 자행한 부대의 책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었다. 학살 행위에 대하여 부대 사령관이 몰랐다는 것으로 면책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본다면, “만약 히로히토가 도쿄 전범재판에 기소되었더라면 군통수권자로서 틀림없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되었을 것”이라고 파이크는 주장한다. 히로히토가 전범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은 “히로히토는 전후 일본 안정에 필요한 열쇠라는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자의적인 오판” 때문이었다.⁸⁷⁾

전쟁 책임론과 관련하여 히로히토의 헌법적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예외주의의 신화(mythology of Japanese exceptionalism)의 핵심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파이크의 주장이다.

85) Pike, *Hirohito's War*, xxxiii-xxxiv.

86) *Ibid.*, xxxiv.

87) *Ibid.*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왕은 국가철학의 핵심이었으며, 태평양 전쟁 시에도 일본의 수백만 군인들이 싸우다 죽어야 하는 ‘이상(idol)’이었다. 패전 과정 중 많은 군인들이 전투에서 최후에 외치던 말도 “천황폐하 만세!(Tenno Heika Banzai!)”였다. 따라서 히로히토는 태평양 전쟁의 “핵심 주동자(mover)”는 아니었지만 그 “전쟁의 화신(embodiment)”이었기 때문에 전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파이크의 주장이다.⁸⁸⁾ 파이크의 주장과 같이 히로히토가 A급 전범이었다면 그가 빠진 도쿄 전범재판은 그 의미나 효과가 처음부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전쟁책임을 숙고할 이유도 사라진 것이다.

전범 문제와 관련하여 히로히토보다 더 큰 논란의 대상은 스탈린이다. 2010년에 출판된 『피의 땅: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 유럽(Bloodlands: Europe between Hitler and Stalin)』에서 티머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는 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하여 살해된 민간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두 독재자에 의하여 살해된 민간인이 무려 1천 4백만 명이나 되었다. 모두 전쟁과 상관없는 순수한 민간인이었다.⁸⁹⁾ 스나이더에 따르면 1933년부터 전쟁이 발발하는 1939년 사이에 히틀러에 의하여 살해된 민간인은 약 1만 명 정도였다.⁹⁰⁾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이후였다. 그리고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히틀러의 학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스나이더에 따르면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계획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유대인뿐 아니라 폴란드인과 러시아인을 모두 말살할 대학살 계획을 세웠다.⁹¹⁾

히틀러 못지않은 학살이 스탈린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스탈린은 2차

88) Ibid.

89) Timothy Snyder, *Bloodlands: Europe between Hitler and Stalin* (New York: Basic Books, 2010), vii.

90) Ibid., x.

91) Ibid., ix-x.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수백만 명을 아사시켰다. 75만 명은 총살되었다. 민간인 학살자 1천 4백만 명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학살되었다. 경제건설의 구실로 살해하였으나 정작 경제적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 학살이었다. 1933년과 1945년 사이 히틀러와 스탈린에 의하여 살해된 1천 4백만 명 중 3분의 1은 스탈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1937년과 1938년 “대공포(Great Terror)”기간 중 스탈린에 의하여 살해된 러시아 농민과 노동자들도 수십만 명이였다.⁹²⁾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히틀러와 스탈린의 집단 학살에 변화가 생겼다. 1939년부터 1941년까지 폴란드를 공동 점령한 스탈린과 히틀러는 폴란드 민간인을 경쟁적으로 집단 학살했다. 수십만 명의 폴란드인을 집단 학살하고, 수십만 명은 강제 이주시켰다. 또한 1940년 히틀러가 노르웨이, 덴마크, 베네룩스 삼국 및 프랑스를 점령하자, 스탈린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북동 루마니아를 점령했다. 그들은 점령지를 피의 학살지로 바꾸어 놓았다. 최악의 학살은 히틀러가 1941년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벌어졌다. 1941년 히틀러가 스탈린이 지배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레닌그라드에 진격하면서 4백만 명 이상을 아사 혹은 총살시켰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스탈린에 의하여 4백만 명 이상 학살된 지역이었다. 같은 지역에서 독일군은 러시아 전쟁 포로들을 아사시켰고, 특수부대를 편성하여 유대인과 지역민을 학살했다.⁹³⁾ 히틀러나 스탈린에 의하여 살해된 민간인들은 전투행위와 상관없는 순수한 민간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학살이었다. 스탈린과 히틀러가 번갈아 가면서 점령하고 학살한 폴란드, 발트3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서부 국경 지역을 스나이더는 “피의 땅(bloodlands)”이라고 부르고 있다.⁹⁴⁾

92) Ibid.

93) Ibid., xi.

94) Ibid.

20세기 역사에서 최악의 집단 학살 사건은 홀로코스트로 간주되고 있지만, 스나이더에 따르면 더 많은 학살 피해를 입은 곳은 “피의 땅”이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피의 땅”은 러시아군이 점령했다. 미군과 영국군은 접근하지 못했다. 학살 현장이 서유럽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이유였다. 아우슈비츠를 포함하여 최악의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던 트레블링카(Treblinka), 소비보르(Sobibor), 벨제크(Belzec), 첼므노(Chelmno), 마이다네크(Majdanek)는 모두 러시아군에 의하여 해방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행해진 집단 학살 행위는 냉전이 끝나고 해당 지역의 사료들이 공개될 때까지 확인될 수 없었다. “집단 학살이 있었던 장소와 방법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20세기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며 스나이더는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학살이 “피의 땅”에서 있었음을 강조한다.⁹⁵⁾

스탈린의 학살행위가 오래 동안 잊혀진 이유에 대하여 데이비스는 연합국이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2007년 출판된 『단순치 않은 승리(No Simple Victory: World War II in Europe, 1939-1945)』에서 그는 연합국은 러시아와 맺은 1942년 영소조약(Anglo-Soviet Treaty of 1942)의 “내정불간섭(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조항 때문에 “조약 상대국의 노예 노동의 비인도적 관행, 집단 수용소, 그리고 집단 학살에 대한 항의를 스스로 자제했다”는 것이다.⁹⁶⁾ 전쟁 중뿐 아니라 종전 후에도 서유럽 연합국들이 러시아와 우호관계 유지를 위하여 러시아의 만행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한다.⁹⁷⁾ 아울러 스탈린의 학살 만행뿐 아니라 연합국의 독일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지적하며 데이비스는 2차 대전을 선악의 대결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영국과

95) Ibid., xiii-xiv.

96) Davis, *No Simple Victory*, 163.

97) 키건 역시 연합군도 히틀러의 학살에 대하여 전쟁 중 이미 광범하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Keegan, *Battle for History*, 24

미국의 독일 도시에 대한 공습은 연합국이 저지른 또 다른 ‘악’이라는 것이다. “1939-1945년 전쟁은 대체적으로 거대한 두 악의 세력의 충돌”이었을 뿐이었다고 비판한다.⁹⁸⁾

5. 맺음말

2차 대전 직후 평화가 동서냉전으로 바뀌고 히틀러를 대신하여 스탈린이 떠오르자, 2차 대전은 불필요한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⁹⁹⁾ 또한 동서냉전 구도 속에서 서유럽 지역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종전 후 50년 넘게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것은 미국의 경제력과 산업능력의 당연한 승리로 해석되었다.¹⁰⁰⁾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한 러시아의 역할은 축소되었다.¹⁰¹⁾ 전후 패전국에 대한 전범재판은 연합국의 시각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공산권 국가들의 사료가 공개되자 2차 대전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로 2차 대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진 결과이다. 2차 대전을 억지하지 못한 책임에 중점을 두는 대신 2차 대전 발발의 근본적 원인은 히틀러였음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물론 히틀러 외에 1차 대전 이후 겪은 독일과 유럽 사회의 역사적 경험도 중요한 발발 요인으로 재인식되고 있다.¹⁰²⁾ 진주만 기습에 대한 이해도 진주만 기습 이전

98) Davis, *No Simple Victory*, 72.

99) Fuller, *A Military History of the Western World*, 634.

100) Keegan, *Battle for History*, 13.

101) *Ibid.*, 41.

102) 칼보코레시와 윈트는 히틀러가 없었다 해도 1939년과 1941년 사이의 세계정 치 상황에서는 2차 대전은 발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Calvocoressi and Wint, *Total War*, 3.

태평양의 지배권을 놓고 각축을 벌인 미일관계에서 찾으려는 해석도 시도되고 있다.

냉전 이후 나온 연구서들은 연합군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협력을 승리의 근본적인 이유로 보는 대신 동유럽에서 펼쳐진 독일과 러시아의 전투가 가장 중요한 전투였고, 이것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가 2차 대전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것이다. 2차 대전의 전세를 역전시킨 가장 중요한 전투는 태평양이나 서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이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아니라 러시아 전선에서 있었던 쿠르스크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리고 모스크바 전투였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군의 승리 요인에 대한 분석도 산업능력보다 문화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해석이 나타났다.

전쟁 책임에 대한 해석도 바뀌고 있다. 전범을 재판한 연합국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범재판이 패전국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탈린의 학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나오면서 전범재판을 실시하였던 연합국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2차 대전 연구에서 주목할 새로운 경향은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해석을 극복하고 초국가적 시각(transnational perspective)에서 세계 대전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전국이나 패전국의 시각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연구의 등장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러시아의 학살이 새로 주목되는 것이나 승전국의 공습과 같은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이런 변화의 일부분이라 판단된다.¹⁰³⁾

앞으로 2차 대전 연구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과거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문을 역사에 던지기 때문

103) Snyder, *Bloodlands*, xviii-xix.

이다. 2차 대전이 종식되고 71년이 지난 지금 2차 대전을 과거와 같은 시각에서 읽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5월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Barak Obama)는 일본 히로시마 원폭 기념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탄 투하에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¹⁰⁴⁾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을 마치 피해국처럼 대접한 것이다. 이런 현실의 변화는 2차 대전 연구에 새로운 해석적 자양분을 공급한다. 원자탄 문제뿐만이 아니다. 연합군의 공습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2차 대전은 군과 민간의 구분이 없어진 총력전(total war)의 대표적 전쟁으로 이해되었다. 이후 전쟁에 있어 민간과 군대의 활동 영역의 구분이 무너졌다. 민간 지역과 산업 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합리화되었다. 하지만 총력전이란 논리로 모든 전쟁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¹⁰⁵⁾ 전쟁 중 희생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국가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글로벌 인도주의 시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최근 2차 대전을 보는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지만 입장에 따른 시각적 편견은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종전 71주년이 지났음에도 2차 대전에 대한 보편타당한 시각의 단행본 저서가 없는 이유이다. 2차 대전 연구의 권위자인 키건은 2차 대전에 대한 객관적 역사서가 등장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은 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¹⁰⁶⁾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한 제임스 맥퍼슨(James M. McPherson)의 저서 『자유의 외침(Battle Cry of Freedom: Civil War Era)』이 남북전쟁 후 약 130년이 지나서야 출판된 점을 감안한

104) *New York Times*, May 27, 2016.

105) 이미 1980년대에 아사다 사다오(Asada Sadao)는 2차 대전 중 “미국인들은 그들이 오래 동안 지켜 온 많은 원칙들을 포기하였다.”고 비판한다. Asada Sadao, “Japanese Perception of the A-Bomb Decision 1945-1980,” in Joe.C. Dixon, ed., *The American Military and the Far East*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0), 216.

106) Keegan, *Battle for History*, 31.

전망이다. 1개국의 내전을 다룬 객관적 저서가 출현하는데도 100년 이상 시간이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2차 대전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키건의 주장이다.¹⁰⁷⁾ 2차 대전을 객관적으로 다룬 단행본 연구서의 신속한 출현으로 키건의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되길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6.8.30, 심사수정일: 2016.9.5, 게재확정일: 2016.9.6.]

주제어 : 2차 세계대전, 아돌프 히틀러, 게르하르트 웨인버그, 피의 땅, 티모시 스나이더, 리처드 오브리, 폴 케네디, 전범문제, 프란시스 파이크, 바락 오바마

107) James M. McPherson, *Battle Cry of Freedom: The Civil War Er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ABSTRACT>

Contemporary Historiography on the Second World War

Kim, Nam-gyun

The peace in the post war world did not last long. The world was immediately trapped into terror of the Cold War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The Cold War situation naturally left a deep ideological impact upon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In the West, many historians thought the Second World War was an ‘unnecessary war’ because it would not have been inevitable if the Western political leaders had wisely responded to Adolf Hitler’s aggression. The unnecessary war was thought to benefit the Soviet Union, which rose up as a great power and consequently initiated the Cold War.

From this perspective, the Western political leaders were criticized for appeasing Hitler to initiate the Second World War and, regarding the reason of the Allies’ victory, the industrial and economic power of the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was evaluated as the major factor in defeating the Axis powers. Concerning the issue of war responsibility, the Nazi leaders and Japanese militarists were considered to have fair trials at the war crimes tribunals.

With the opening of the archives of Russi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fter the Cold War ended in the 1990s, however,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was strongly challenged. New materials discovered from the archives of the former communist countries provided contradictory evidence against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about the Second World War. Th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was required to be rewritten and reinterpreted.

New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in the post-Cold War era verifies the imperial ambition of the Germany ignited by Adolf Hitler as the major cause of the war. Along with Hitler,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First World War and its impact on the European and German societies

have also been reevaluated regarding cause of the Second World War.

Explaining the Allies' victory, new interpretations emphasize the role of the Russian military forces in defeating the German forces in the Second World War. The critical turning points in the war were made in the eastern front rather than in the western front or in the Pacific. Because conquering Russia was the major war aim for Hitler, he deployed more forces in the East than in the West. He expected to get an easy victory in Russia. But he faced miserable defeats in the East against the formidable Russian forces, especially in Kursk, Stalingrad, and Moscow. The Allies' victory was won because of the turning points made in the East.

On the issue of the war crimes trials, new interpretations challenge the conventional one. The war crimes trials were not interpreted as effective in cultivating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in the defeated societies. The defeated countries did not voluntarily take any ethical responsibility about the war. In addition, more importantly, new interpretations based on recently opened materials show that the Allies also committed war crimes too. Stalin killed several millions of innocent civilians, who had nothing to do with the war, which is as many as Hitler did. Stalin's massacre of civilians occurred in the regions between Russia and Germany, which were termed "Bloodlands" by Timothy Snyder. The justice of the war crimes tribunals therefore has been seriously questioned.

Conclusively speaking,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seems to lose its ground against new interpretations in the post Cold War era. However, it is still very hard to define the decisive trend in the recent historical writings about the Second World War because there are still many various interpretations depending on ideology, race, nation and other factors about the war. As John Keegan predicts, it will not be easy to see a well-balanced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World War in the near future. Maybe we need to wait another 100 years to read that kind of book.

Key words : Adolf Hitler, Bloodlands, Second World War, A.J.P. Taylor, Timothy Snyder, Gerhard Weinberg, Paul Kennedy, Richard Overy, Francis Pike, Barak Kushner

